

전국구 관광스타 가우도 그곳에 가고 싶다

전남도 '가고 싶은 섬' 이어 '한국 대표 관광지 100선' 선정
새해 첫날 방문객 8000명 육박...짚트랙 탑승 장사진 인기
'함께해(海)길' 걷고 낚시 하고... '강진 방문의 해' 대박 예상

새해 첫날 '전남도 가고싶은 섬 강진 가우도'를 찾은 방문객이 8000명에 육박하는 등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다. 가우도는 2017년 시작과 함께 남해안 최고 관광지로 이름값을 높인 것이다.

강진군은 올해를 '남도답사 1번지 강진 방문의 해'로 정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가우도의 새해 대박으로 한껏 고무된 모습이다.

가우도는 여기에 최근 한국을 대표하는 관광지 100선에 선정되면서 또 하나의 이정표를 세웠다.

전남도 가고싶은 섬으로 선정돼 전남대표 관광지로 인기몰이를 해온 가우도는 관광지 100선 선정으로 전국구 스타로 급부상하게 됐다.

이처럼 민선 6기 강진원 강진군수가 주력사업으로 내세운 가우도 관광지 조성 사업이 대성공을 거두면서, 또 다른 야심작으로 내놓은 '2017년 강진 방문의 해' 프로젝트도 초대박이 터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관광지 100선 선정...강진방문의 해 성공 기운 '딱딱' =새해 첫날인 지난 1일 강진 가우도 방문객은 7346명을 기록했다. 관광성수기도 아닌 추운 겨울날씨를 감안하면 그야말로 대박 수준이다.

여기에 최근 논란을 소식이 하나 더 전해졌다. 지난 9일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 100선에 가우도가 선정된 것.

가우도가 외부로 이름을 알린 게 불과 2년 전이라는 점에서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전국 대표 관광지로 선정된 자체가 기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한국관광 100선은 2년에 한 번씩 한국을 대표하는 관광지 100곳을 선정해 알리는 사업으로 지난 2013년 처음 도입됐다.

이번에 선정된 한국관광 100선은 관광지 인지도·만족도, 방문 의향 등 온라인 설문조사와 통신사와 소셜, 네비게이션 빅데이터 분석, 관광객 증가율, 검색량, 전문가들의 현장평가 등을 통해 선정됐다.

가우도는 강진 관내 8개의 섬 가운데 유일한 유인도이다. 소의 명에처럼 생겼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도암면 망호와 대구면 저두 양쪽에서 가우도로 걸어 들어가는 두 개의 출렁다리가 있다. 이러한 경관은 국내에서 유일하다.

출렁다리를 건너면 '함께해(海)길'해안 산책길이 잘 다듬어져 있어 바다를 배경으로 아름다운 경관을 감상할 수 있다. 감성돔 등 다양한 어종이 잡히는 천혜의 낚시터인 '가우도 복합낚시공원'도 전국 낚시 동호인의 사랑을 받고 있다.

가우도에 설치된 무인계측기로 확인된 지난해 가우도 방문객은 73만여명에 이른다. 이는 전년보다 두 배



강진 가우도를 찾은 관광객들이 산 정상에 들어선 세계 최대 크기의 청자모형 타워에서 짚트랙을 타고 해상 하강 체험을 하고 있다. <강진군 제공>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가우도가 명실상부한 강진관광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가우도가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됨으로써 강진의 랜드마크임이 다시 한 번 입증됐다"면서 "이를 계기로 2017 남도답사 1번지 강진 방문의 해의 성공에도 자신감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가우도 청자타워·짚트랙 강진경제 견인 =강진군은 지난해 10월 가우도 산 정상에 세계 최대 크기의

청자모형 타워와 이곳에서 출발하는 해상 하강체험시설인 짚트랙을 완공했다.

1km에 이르는 전국 최장 길이 짚트랙 횡단시간은 1분 남짓. 라인은 3개로 세 명이 동시에 이용 가능해 가족과 친구, 연인끼리 공중에서 서로 마주보며 내려올 수 있도록 만들었다.

새해 첫날 청자타워내 짚트랙을 탄 체험 관광객은 주말 평균 200명 수준의 3배인 600명에 달했다. 대기



감성돔 등 다양한 어종이 잡히는 천혜의 낚시터인 '가우도 복합낚시공원'에서 강태공들이 낚시에 푹 빠져있다. <강진군 제공>

줄만 수십m에 이르러 가우도짚트랙 관계자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하루 매출액 역시 짚트랙 개장 이후 가장 많은 액수인 1000여만원을 기록했다.

㈜가우도짚트랙 박도원 총괄부장은 "짚트랙을 타본 관광객들의 반응이 폭발적"이라며 "특히 전국에 산재한 일반 짚트랙이 단순한 철구조물에서 출발하는 데 비해 강진 가우도 짚트랙은 세계 최대 크기의 청자타워 안에서 출발해 차별화와 새로움을 많이 느끼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 부장은 특히 "나무숲을 지나 바다를 건너가다 멀리 출렁다리를 건너는 관광객을 보는 즐거움도 매력적이라고 입을 모은다"면서 "청자타워 안에서 바다로 쪽 뻗어있는 와이어가 마치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착시현상으로 '우리가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죠'라며 묻는 등 가우도 짚트랙의 매력적인 모습에 감탄을 많이 한다"고 귀띔했다.

(주)가우도짚트랙은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설 명절 연휴기간에도 정상 가능하다. 이 기간 '할아버지와 손자가 함께', '아빠와 함께'타면 탑승요금을 할인해주는 이벤트도 연다.

일반 성인이용객은 현장에서 입장권을 구입한 뒤 다시 5000원권 강진사랑상품권을 바로 돌려받아 강진의 농수특산물을 구입하거나 강진읍내 상가에 들러 자유롭게 물건을 살 수 있어 강진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관광객은 관광객대로, 강진군은 강진군대로 상생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누리는 셈이다.

강진군은 짚트랙을 민간에 위탁해 연간 1억원의 사용료를 받고 수익에 따라 50대 50 균등배분을 통해 결과적으로 군이 수익을 더 얻을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다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전혀 투입되지 않아 인건비 등 운영을 위한 군 예산과 인력 소모도 전혀 없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강진의 지역경제를 견인하고 있는 가우도를 잘 가꾸고 정비해 '강진 방문의 해' 기간 동안 많은 관광객이 즐겁고 마음 착한 추억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h@kwangju.co.kr

www.aroma-life.co.kr

| '건강'과 '아름다움'을 모두 잡은 |

맛춤형 기능성 속옷의 명가 아로마라이프

- 한국, 미국, 일본, 중국에서 특허받은 유니크한 디자인
- 편안한 착용감과 생리적인 불편함을 해결한 제품
- 도레이社 LYCRA 를 사용 (별단면옥각형)
- 특수 물질가공(원적외선, 음이온 방출)

(주)아로마라이프 상담 및 문의 1588-2219

아모리온
브라+슈트+거들
4개국 특허 3단 일체형 슈트

아모리온 롱바디
브라+슈트+거들+레깅스
4개국 특허 4단 일체형 슈트

아실리바디슈트
블랙은사 바디슈트의
은사 레이스 품평회 1등

비비드아모르
러닝+팬츠 일체형
남성용 슈트